# 사사기 6. "여선지자 드보라 - 남성들이여 일어나라" [4장 1절-4장 24절]

#### 1. 들어가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철병거 900 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20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통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며 그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야빈의 군대를 멸하였고, 군대장관 시스라는 도망하던 중 믿었던 하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처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2. 반복되는 10 가지 패턴

	패 턴	표 현	드보라	옷니엘
1.	악행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4;1	3:7
2.	우상숭배			3:7
3.	진노			3:8
4.	팖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3:8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4:3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5.	부르짖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3	3:9
6.	세움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4:4	3:9
		사사가 되었는데		
7.	사사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4:5		3:10
8.	승리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4:23 3:10		3:10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9.	평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4:24	3:11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10.	죽음			3:11

# 3.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을 행함 - 구산 리사다임 왕에 의한 8년간의
고통 - 첫사사을 통한 구원	년간 평안의 시대
사사 옷니엘이 죽은 뒤 또 다시 여호와의	에서 악을 행함 -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18년간의 고통 - 두 번째 사사	<u>을</u> 통해 구원 —년간 평안의 시[
사사 에훗이 죽은 뒤 또 다시 여호와의 _	에서 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1)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_\_\_\_\_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말합니다. (렘 17:9) 그럼으로 우리는 늘 성령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 4.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 1)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 받았던 지역으로 당시 북부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요새 중하나였습니다.
- 2) 야빈의 이름의 뜻 = "지식 있는 자, 총명한 자"란 뜻으로, 그는 당시 가나안 땅의 지식과 권세를 소유했던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3) 군대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 대
- 야빈 왕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갈렙을 선두로 한 믿음의 지파 유다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지
  못해 망설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두려움에 떨었겠는가?
- 4)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야빈 왕은 \_\_\_\_\_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 생각해 보기 1. 여호수아서의 하솔의 왕 야빈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1:1-15절을 읽어 봅시다.

당시 하솔은 가나안 부족들의 머리였던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의해 하솔은 완전히 불타며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약 150 여년이 지난 오늘 하솔은 다시금 부활하여 그 세력을 회복하고 오히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 5.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

- 1) 첫 번째 사사 <u>옷니엘</u>은 유다 지파의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지만, 둘째 사사 <u>에홋</u>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오른 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고, 셋째 사사 <u>삼갈</u>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벤 아낫 출신의 단순한 농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최후의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 2) 드보라
-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 곧 그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삶을 살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 유대 학자들은 드보라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등불의 심지를 만드는 일에 종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들을 밝혀는 빛의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히 그녀는 사마리아 남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벧엘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 거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때문에 그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불렀습니다.
- 3) 드보라에 대한 오해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인인 잔다르크와 같은 이스라엘의 여전사이다?"
- 사사기의 저자는 그녀를 '랍비돗'이란 남자의 아내로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드보라는 랍비돗의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이스라엘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 드보라는 이전 사사들처럼 직접 나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은 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였습니다. 곧 드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결코 교만하거나, 과하게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6. 이스라엘과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

- 1)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작전을 전달하였습니다. - 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 2)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 a. 아군이 해야 할 일 + b. 적군의 동향. (6-7절)
  - a.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 b.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 3)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두려움에 주저하며 망설였습니다.
-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 바락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4) 연약한 신앙과 주저하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주저하는 믿음과 연약한 마음은 전쟁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또한 한 순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저하며 두려워한 바락과 반대로 드보라는 그 즉시 자신도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녀의 빠른 결정은 성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5) 이번 전쟁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_\_\_\_\_\_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_\_\_\_\_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 6) 헤벨의 아내. 야엘
- 참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성경에는 총 3 가지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르우엘"(출 2:18), "이드로"(출 3:1),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밥"이 그 이름입니다.
- 그런데 민 10:29 절에 보면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의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이란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처남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
- 그럼, 르우엘과 이드로는? 학자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불린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세의 장인도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두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처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였습니다.
- 철병거의 대장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쳐, 결국 한 여인의 손에 잠자다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하기 2.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2. 오늘 내용 속에서 개인적으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은..?